

도다이몬 문(동대문)(나라 시대 국보)

이 웅장한 모습의 도다이몬 문(동대문)은 서원 가람에서 동원 가람으로 통하는 참배길 중간에 서 있습니다. 문의 내력은 알 수 없지만 1934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부재의 묵서로 보아 원래는 가가미 연못 동쪽에 남향으로 세워졌던 문을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에 이축하여 동서 방향으로 빠져 나가는 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3개의 마룻대가 지붕을 지탱하는 미쓰무네즈쿠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나라 시대(710~794년)의 건축 기법을 보여 주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